

# 고용 호조에 맞벌이 가구·1인 가구 취업 '역대 최대'

### 584만6천가구 부부 모두 일해...40-50대 절반 이상 1인가구 비중 63%...10명 중 1명 월급 100만원 미만

고용 시장 호조가 반영되며 맞벌이 가구 비중과 1인 취업 가구 비중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의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을 20일 발표했다.

◇맞벌이 가구 비중 46% 역대 최고

지난해 하반기(10월) 기준 맞벌이 가구는 584만6천 가구로 1년 전보다 2만 가구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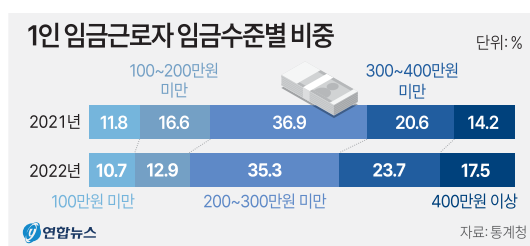
전체 유배우 가구(1천209만1천 가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46.1%로 0.2% 포인트(p)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현

기준으로 개편된 2015년 이후 역대 가장 컸다.

지난해 하반기 고용 시장의 호조세 등으로 부부 모두가 일하는 가구의 비중도 늘었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가구주 연령별로 맞벌이 가구 비중 증가율을 보면 15-29세(7.3%p), 30대(0.8%p), 40대(0.4%p), 50대(0.0%p) 등 전 연령대에서 커졌다.

비중은 50대(55.2%)와 40대(55.2%)에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컸다. 30대(54.2%)와 15-29세(50.1%) 등이 뒤를 이었다. 15세-59세 부부 절반 이상이 맞벌이



를 하는 셈이다.

60세 이상 부부 중에는 31.1%가 맞벌이를 해 비중이 1년 전보다 0.5%p 늘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는 216만8천 가구로 1년 전보다 7만9천 가구 감소했다.

18세 미만 자녀를 둔 유배우 가구(406만9천 가구) 가운데 비중은 53.3%로 1년 전과 동일했다.

막내 자녀의 연령별로 보면 맞벌이 가구는 7-12세(78만3천 가구), 6세 이하

(77만8천 가구), 13-17세(60만7천 가구) 순으로 많았다.

유배우 가구 대비 맞벌이 비중은 13-17세(59.4%), 7-12세(55.6%), 6세 이하(47.5%) 순으로 컸다.

자녀 수별로 보면 1명(63.9%), 2명(53.3%), 3명 이상(49.5%) 순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맞벌이 가구 비중이 작았다.

지역별로 보면 맞벌이 가구 비중은 제주(63.5%), 전남(56.4%), 세종(55.8%) 순으로 컸다.

◇1인 가구 취업 비중 63% 사상 최대

지난해 하반기 1인 가구는 722만4천 가구로 1년 전보다 18만4천 가구 늘었다. 이중 취업 가구는 455만5천 가구로 20만4천 가구 증가했다. 1인 가구 중 취업

가구 비중은 1.3%p 상승한 63.1%였다.

지난해 하반기 고용 시장 호조에 1인 취업 가구 비중도 관련 통계가 현 기준으로 개편된 2015년 이후 역대 가장 컸다.

연령별로 보면 1인 취업 가구는 30대(107만1천 가구), 60세 이상(96만9천 가구), 15-29세(93만6천 가구) 순으로 많았다.

1인 가구 중 취업 가구 비중은 30대(88.0%), 40대(82.4%), 50대(73.3%), 15-29세(66.6%), 60세 이상(37.8%)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해 30대(2.4%p), 15-29세(2.1%p) 등 전 연령대에서 비중이 커졌다.

1인 임금근로자 가구의 임금 수준을 보면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가구 비율이 35.3%로 가장 많았다. 300만-400만원(23.7%), 400만원 이

상(17.5%), 100만-200만원(12.9%) 등이 뒤를 이었다.

월급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10.7%였다. 혼자 살아가는 임금근로자 10명 중 1명은 월급이 100만원에 못 미치는 것이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해 비중은 1.1%p 낮아졌다.

산업별로 보면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 비중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3.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30.6%), 농업·임업 및 어업(26.5%) 등에서 컸다.

주로 취업 시간이 짧고 고령 취업자가 많은 산업에서 비중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보면 1인 취업 가구 비중은 세종(72.9%), 제주(69.9%), 경기(68.7%) 순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 한전, 오늘 '3분기 전기요금 동결' 발표할듯

### 정부, 여름철 국민부담 고려 '속도 조절'

올해 두 차례 인상된 전기요금이 3분기(7-9월)에는 동결될 전망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21일 오전 올해 3분기 전기요금과 관련한 발표를 준비 중인 가운데 '동결'로 가닥이 잡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상황으로는 3분기 인상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인상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3분기 전기요금 동결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한전의 이번 발표는 산업부 고시에 따른 한전의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요인' 제출, 산업부의 종합 검토 및 의견

제시에 이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8원 올린 데 이어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을 앞두고 또 요금을 올릴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은 모두 5번에 걸쳐 kWh당 총 40.4원 올라 인상률은 39.6%에 달한다.

국제 에너지가 상승분이 온전히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전기요금이 상당히 올랐고,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여 한전의 '역마진'이 축소되는 추세라는 점도 정부 내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어준다.

한전 전력월보에 따르면 kWh당 전력 구입단가(144원)에서 판매단가(136.2원)를 뺀 '역마진'은 1월 17.2원, 2월 14.5원, 3월 34원이었다가 4월 7.8원으로

폭 떨어졌다. 2022년 한전의 kWh당 '역마진'이 42.0원까지 올랐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 폭 개선이다.

'역마진' 축소는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과 국제 에너지가 안정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한전의 역마진 해소가 아직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45조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해소해 한전 재무 위기를 극복하려면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필요성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다.

증권가에서는 꾸준한 요금 인상에도 한전이 2분기까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전 관계자는 "향후 3·4분기 흑자가 나오면 1·2분기 적자가 너무 커 올해 연간 적자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흑자가 막 난다고 누적인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공정위, 은행 이어 증권사도 담합 조사 착수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혐의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증권사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인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부터 메리츠, KB, 삼성, NH투자, 키움증권 등 5개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에 조사 권한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주식 매매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를 포함해 업무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주요 은행의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혐의, 보험사들의 배내장 보합금 지급 거부 담합 혐의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서울서 개장한 전남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20일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14단지에서 개장한 '전남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전남도는 도내 농수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직거래장터를 마련했다. /연합뉴스

## 한국거래소 '기술특례상장 설명회' 연다

### 오늘 서울 비웃 전국 6곳 순회 업권별 상담

한국거래소가 핵심 기술기업의 발굴과 상장 지원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유관기관 등과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 상담 로드쇼(이하 설명회)'를 전국 순회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1일 서울을 시작으로 23일 충북 오송(바이오), 30일 경기 용인(반도체), 7월 10일 판교(4차 산업), 1

2일 구미(로봇·모빌리티), 20일 익산(스마트팜) 등을 방문, 로드쇼 형식으로 개최된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자금 수요자인 기업과 모험자본의 공급자인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최근 벤처투자 심리 위축 해소를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상장 담당 임

원, 부장이 핵심산업별 거점지역을 직접 방문해 업종·사업별로 특화된 기술특례 상장기준과 중점 심사사항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질의·응답과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현장감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핵심 기술기업들이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기업 상장 전과정에 걸친 업권별 전문가들이 참가해 핵심 기술기업들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채만 기자

## 상무지구 상가 (매매)

▶ 중심 상업지구

(6층, 7층) = 140평

시세 → 14억

급매 6억8천

보3천, 월 380만 ( 용 4억5천 )

## 장성토지 매매

▶ 장성호(댐) - 5분

광주 - 20분

토목공사 완료

6m 도로접

(100평, 150평, 200평 가능)

## 경매교육 [ 특수전문반 ]

기초반, 중급반

**\* 특수 전문반 모집 ( 10명 )**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광주	광산구 연산동 (근린시설) ▶ 감평가 29억 → 최저가 20억
	북구 신안동 (근린시설) ▶ 감평가 50억 → 최저가 28억
	북구 일곡동 (근린주택) ▶ 감평가 8억3천 → 최저가 5억8천
	동구 불로동 (근린주택) ▶ 감평가 31억 → 최저가 22억
	북구 일곡동 (근린주택) ▶ 감평가 10억 → 최저가 7억5천
	광산구 수완동 (근린상가) ▶ 감평가 4억 → 최저가 2억2천
	북구 운암동 (근린상가) ▶ 감평가 1억7천 → 최저가 1억2천
	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 감평가 54억 → 최저가 19억

**010-6670-9800**